

# 녹용은 1등 보약제

김영섭/백운당한의원 원장



흔히 녹용(鹿茸)이라고 하면 보약에만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보혈제로서 녹용은 훌륭한 보약의 재료이다. 그러나 천식이나 조혈 또는 관절계통의 치료에 빠지지 않고 효과가 매우 큰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한약에 쓰이는 중요한 재료 중에서도 첫번째로 손꼽을 정도로 녹용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효과를 발휘하고 허약, 기부족, 정력부족 등에 매우 좋기 때문에 보약을

지을 경우 빠지지 않고 쓰이고 있다.

일반인들은 흔히 녹용이라고 하면 사슴뿔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녹각과 녹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자손님 한 분이 가을도 되고 몸도 허한 것 같아서 보약을 짓겠다고 필자를 찾아왔다.

그런데 자신의 친지가 아주 좋은 것이라고 하며 녹용을 선물했는데 그것을 넣어서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하자 쇼핑백에

서 기분 좋게 내놓은 것이, 밥소사! 자신이 녹용이라고 알고 받아들인 것이 바로 녹각이었던 것이다.

필자의 한의원에 보유하고 있던 녹용을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을 하자 본인이 비교해 본 연후에 이제는 진짜가 어떤 건지 어렵풋이라도 알 것 같다며 좋아했다.

녹용은 시슴뿔이 처음 나온 것을 의미하며, 이 녹용을 잘라야 할 시기를 놓치고 단단하게 굳어버려 각질화된 것을 녹각이라 하는데 물론 그 나뭇대로의 유효성분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녹용의 효과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처음 녹용의 모습은 갓나온 송이의 모습과 같으며 표면에 부드러운 털이 있고, 자라면서 가지가 생겨나 이 뿔 속에 피가 모여 있다. 녹용의 시기가 지나고 점점 쇠하여지면 뿔속 피의 양도 줄어들게 되며 껍질은 털이 빠지고 딱딱한 각질이 되어 이마저도 오래되면 저절로 뿔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낙각이라 하여 한약으로도 쓰이지 않는다.

항간에 떠도는 말로 어려서 녹용을 많이 먹이면 머리가 나빠지고 살만 많이 찐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근거없는 낭설일 뿐이다. 그러나 그런 말이 나온 경위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

허약한 사람에게 녹용을 먹이면 입맛을 되찾아 음식을 잘 먹게 된다. 그러나 자연히 살이 오르는 것이지 비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비만은 유전적 체질이다.

옛날에는 녹용이 아주 귀했다. 궁중에서 녹용을 도둑맞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 이때 어의 한사람이 피를 내어 『녹용을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후로 궁중에서 녹용도둑이 사라졌다는 일화가 전한다.

아무튼 요즈음 아이들은 학교공부하랴 학원에 다니랴 어려서부터 몸을 혹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혈제로서의 녹용은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여 뇌에 영양을 공급하고 근골을 살찌우니 피로에 지친 아이들에게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녹용에 대한 한방의 기록들을 살펴봐도 녹용의 쓰임새를 짐작할 수 있겠다.

녹용의 약성은 따뜻하며, 맛은 신맛과 단맛과 짠맛이 함께한다. 귀경은 명문(命門)과 독맥(督脈)과 간(肝)에 들어간다.

녹용의 유효성분은 탄산암모늄, 녹용정, 교질, 단백질, 연골소, 호르몬류 등을 함유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린이들에게는 허약체질을 보해주고 치아발육을 도와주며, 발육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는 붕루와 악혈을 없애주고 대하를 고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노인들에게는 관절이 아프거나 기운이 없는 것, 현기증과 신기허약, 뼈와 힘줄을 굳게 하는 등 그 효과를 헤아리기 어렵다.

그러나, 뉘니뉘니해도 양기를 보해주고 정력을 왕성하게 해주는 효과가 또한 눈에 띄일 것이다. 정기를 발생하게 하여 혈액의 영양이 되고, 성욕을 왕성하게 하며, 모든 허손과 노상을 회복시킨다. 유정(遺精)과 조루증, 그리고 몽설(夢泄), 발기불능, 불감증 등을 치료하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 음낭 아래가 축축하고 습기가 찰때, 쉽게 피로를 느끼고 정력이 감퇴될 때 효과가 좋으며, 생식선을 흥분케 하여 성욕을 일깨우고 하복부의 냉함을 없애주며 소변이 자주 미려운 증세에도 효과가 있다.

녹용을 이용하여 술을 담그면 일컬어 「녹용주(鹿茸酒)」라 하는데, 청주 1리터에 녹용 한냥 정도와 산에서 나는 마를 가루내어 고운 베에 싸서 함께 넣고 완전히 밀폐시켜 1주일 정도 두었다가 잠자리에 들기전에 한 컵씩 마시면 정력이 샘솟음은 물론 피로가 가시고 피부가 윤택해진다.

그 밖에 각종 정력을 위한 보약에 녹용이 들어 가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터무니없는 소문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정력에 의문이 생기면 한방전문의를 찾아 상의하여 피로해진 심신에 정기를 보충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꿈을 주는 남자, 꿈을 꾸는 여자」에서 발체(도서출판무한)